

중국역사문헌중 일본해(경해)명칭에 대한 고찰

유신균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역사소 연구원)

“일본해(日本海)” (경해 鯨海) (해역)이 중국 역사왕조에서의 명칭은 하나의 연변과정을 거쳤다. 수·당 이전에는 전문용어가 없이 넓은 의미에서 "바다(海)"라고 하였고, 수당(隋唐) 시기에는 “대해(大海)”라고 하였으며, 송요금(宋辽金) 시기에는 “동해(东海)”, 원명(元明)시기에는 “경해(鯨海)”, 청(淸)대에는 그 북부를 “동해(东海)”, 남부를 “남해(南海)”라고 하였다. 광서(光緒) 10년 (1884) 전후에 “일본해”라는 이름이 나타났고 관방문서로는 광서31년(1905) 체결된 일로조약 《朴茨茅斯條約》에 처음으로 “일본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그 후 이 명칭의 사용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하나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다. “日本海”명칭의 유래를 추적해 보는 것은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정치와 민족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역사적 현실적 가치가 있을 것이라 본다.

一. 요, 송이전 일본해(경해)에는 고유명칭이 없었다

“일본해” (경해) 는 러시아빈해변강지역의 동쪽으로부터 조선반도의 동쪽과 북쪽, 일본열도서쪽, 사할린도 이서, 이남의 해역을 말한다. 이 해역의 서북해안과 사할린도를 포함한 러시아 원동지역은 오랫동안 중국왕조의 통치를 받았으며 세세대대로 이 넓은 지역에서 생활해온 숙신족(肅慎族; 한위 이후에는 읍루, 물길, 말갈, 여진, 만족 등으로 부름)은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오래된 민족으로서 몇 천 년을 존속하여 왔다. 이리하여 중국 역사문헌 속에는 숙신족과 일본해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다.

일찍이 하,상,주(夏商周)시기에 숙신족은 중국왕조와 예속관계를 건립하고 활과 화살을 공물로 바쳤다. 주무왕은 후세 사람 등에게 알리기 위해 화살대에 “肅慎氏之貢弓”(숙신씨가 공물로 바친 활)이라는 여섯 자를 새겨넣은 적이 있고 《左传》의 기록에 의하면 주나라 천자는 "숙신과 연(燕), 호(亳)는 나의 북쪽 강토다"라고 자부하여 선포했다고 한다. 숙신족은 송화강 동쪽, 일본해 서쪽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다.

한진(汉晋)시기, 숙신족은 읍루라 하였고 부여(夫余)에 귀속되었으며 동진(东晋) 시기에는 평주(관공서가 지금의 하북성 노용현에 있다.)의 관할을 받았다. 그 활동범위는 "부여 동북쪽으로 천리 남짓, 동쪽으로 大海에 임해 있고 남으로는 북옥저(北沃沮)와 닿았고 북쪽으로는 그 경계를 알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한 大海가 바로 지금의 일본해이다. 《三国志》에도 "읍루는 부여 동북쪽으로 천리 남짓, 동쪽으로 大海에 닿아 있

고 남으로는 북옥저와 닿았고 북쪽으로는 그 경계를 알 수가 없다." 는 기록이 있다. 《晋书》의 기록은 더 상세하다. “숙신씨는 일명 읍루라고 하며 불함산이 북에 있는데 부여로 가려면 60일을 가야 한다. 동쪽은 大海와 닿아있고, 서쪽은 구만한국과 닿아 있으며, 북쪽은 약수까지 이른다.” 여기서 “불함산”은 오늘의 장백산, “大海”는 지금의 “일본해”, “구만한국”은 부여국을 가리키며, “약수”는 지금의 흑룡강 하류를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한위여진선조분포도”를 보라.

이런 것들에 근거하여 볼 때 읍루는 마땅히 지금의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동부, 러시아 빈해 변강구역의 전부, 하바롭스키 변강구역 남부일대를 가리킨다. 이후 중국전적 《통전》 권186 《읍루》, 《통지》 권194 《읍루전》, 《문헌통고》 권326 《읍루》, 《태평환우기》 권175 《읍루》에 모두 《후한서》, 《삼국지》, 《진서》의 기록을 인용하여 “빈대해”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같은 것이다.

남북조시기 읍루는 물길로 개명하였다. 《위서》의 기록에 따르면 "물길국은 고구려 북쪽에 있으며 옛 숙신국이다." 《북사》에도 "물길국은 고구려 북쪽에 있으며 말갈이라고도 한다."는 기록이 있다. 그 부는 유형에 따라 일곱 개 즉, 속말부, 백돌부, 안거골부, 불널부, 호실부, 흑수부, 백산부로 나누는데 지금의 장백산 이북 눈강(嫩江) 하류의 동쪽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동으로는 지금의 일본해에 이른다. 자세한 것은 "북위시기여진선인들의 분포도"를 자세히 보라.

그 후 《통전》 권186 《물길》, 《통지》 권194 《물길전》, 《문헌통고》 권326 《물길》, 《태평환우기》 권175 《물길》은 모두 《위서》, 《북사》의 기록을 채용하고 있다.

수당시기 물길은 말갈이라 불렀고 여전히 일곱부로 나누었다. 그 중 속말부의 대조영이 무척천 성력 원년 (698년)에 “진국”을 세웠다. 개원 원년 (713년) 대조영은 당조의 책봉을 받고 “발해국”으로 개칭한다. 《구당서》 기록에도 “말갈은 대개 숙신지역으로 후위는 물길이라 불렀고 서울의 동북쪽 6천여리 상거한 곳에 있다. 동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돌궐과 접해 있고 남쪽 경계는 고려, 북쪽으로는 실위와 인접해 있다.” 여기서 “동으로는 바다까지 이르렀고”의 바다는 마땅히 지금의 일본해를 가리킨다. 《신당서》에도 "흑수(黑水)"의 말갈은 숙신의 땅에 거하며 읍루라고도 하며 원위(元魏)때에는 물길이라고 불렀다. 경사(京師) 수도의 동북쪽으로 6천리를 뻗어나가 동쪽으로 바다에 닿았고 서쪽으로는 돌궐, 남쪽으로는 고려, 북쪽으로는 실위와 접했다." 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비록 흑수의 말갈만 제기하고 있지만 문장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응당 전체 말갈 일곱부의 활동범위를 가리킨다. "동쪽으로 바다에 닿았고"는 그 동부가 지금의 "일본해"에 닿았다는 것이다. 흑수말갈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당회요》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지금 흑수말갈의 경계는 남으로는 발해국 현덕부, 북으로는 소해(小海), 동으로는 대해(大海)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실위와 접해 있다. 여기서 "소해(小海)"는 지금의 오호츠크해를 가리키고 "대해(大海)"는 지금의 "일본해"를 가리킨다. 《신당서》에는 또 "그 남쪽으로는 발해를 바라보고 있고 북쪽과 동쪽으로는 바다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으로는 실위에 닿으며 남북이 2천리, 동서로 천리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북쪽경계가 되는 바다는 오호츠크해를, 동쪽경계가

되는 바다는 일본해를 가리킨다. 발해국은 대인수(大仁秀) 통치시기 (818-829) 에 선후로 신라를 물리치고 흑수말갈을 정복시켜 강토가 크게 넓어졌다. 그 범위가 남으로는 니하(泥河; 지금의 조선 함경남도 용흥강)을 경계로 신라와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오호츠크해, 서쪽으로는 거란, 동쪽으로는 지금의 일본해에 이른다. (사할린도를 포함) 그 동쪽경계에 대하여 《신당서》 권219 《발해전》, 《거란국지》 권26 《발해》, 《금사》 권1 《본기일·세기》, 《문헌통고》 권326 《발해》, 《송막기문》 권상 《발해》 에서는 모두 “동쪽으로 바다에 이른다.”, “동쪽으로 바다에 닿는다.”, “동쪽으로 바다에 임했다.”로 기록하고 있다.

이로부터 수당이전과 수당시기를 포함하여 중국역사문헌속에 지금의 일본해해역에 대한 확정된 이름이 없었고 두루뭉술하게 "바다(해)"또는 "대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二. 요, 송이후 일본해(경해) 고유명칭의 연변

거란은 건국초기에 동으로 발해국을 정벌하고 아울러 료태조(遼太祖) 천현 원년 (926년)에 발해국을 멸망시키고 그 옛터에 동단국을 세워 태자 배(倍)를 국왕으로 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흑수말갈은 여진이라 이름을 바꾸었고 여직(女直)이라고도 썼으며 거란에 귀속되었다. 여진인의 분포범위에 대해서는 《삼조북맹외편》에 “여진은 동으로 바다에 인접하고 남으로 고려와 이웃하고 서로는 발해(국), 철리와 접하며 북으로는 실위와 가깝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 “가장 먼 변경인 동해근처에 있는 자들을 동해여진이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료사》의 기록에 따르면 료의 강토는 “동으로 바다에 이르고 서로 금산에 이르러 사막에 닿으며 북으로는 려구하에 이르고 남으로는 백구에 이르러 사방 만 리에 달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으로 바다에 인접하고”, “동으로 바다에 이르고”, “동해”가 어느 바다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학자들의 이해는 서로 다르다. 한 가지는 여진이 동으로 지금의 오호츠크해와 임했다는 설이고 다른 한 가지는 동으로 지금의 일본해와 임했다는 설이다. 두 가지 의견분기의 초점은 흑룡강과 송화강 하류에 있는 5국부를 지금의 여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만약 5국부를 여진으로 볼 수 있다면 동으로 오호츠크해에 임했을 것이고 5국부를 여진으로 볼 수 없다면 동으로 지금의 일본해에 임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송회요집고》에 명확한 기록이 있다. "(여진)수령은 스스로 말하기를 여진 밖에 또 다섯 개의 나라가 있는데 철륵, 분눌, 완돌, 말홀파홀, 교리몰 모두 여진과 접경하고 있다." 기왕에 다섯 개 국부가 모두 여진 밖에 있다고 하였으니 당연히 여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진과 오호츠크해 사이에는 다섯 개의 국부가 있었으니 여진이 "동으로 인접한 바다"는 당연히 지금의 일본해를 가리키며 "동해" 또한 일본해를 말한다. “요나라 여진분포도”와 《중국역사지도집》 제6권 "료, 북송시기전도"에서 "요동경도 국부도"를 자세히 보기로 하자.

여기서 특별히 지적해야 할 것은 "동해"라는 단어의 출현이 지금의 일본해가 제일 처음으로 가지게 된 고유 명칭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동해"라는 고유해역 명칭의 출현

으로 인하여 "동해"서부해안에 거주하던 여진인들이 "동해여진"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여진인들이 건립한 금나라는 여전히 "동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에 두 가지 증거가 있다. 하나는 《대금집례》에 있는 《제동해축문》이고 다른 하나는 금나라 말기에 건립된 동하국이 지금의 일본해 서부해안지역을 동해라고 부른 것이다. 《동평왕세가》에 “포선만노가 을해년(1215년)부터 무리를 지어 동해에 거주하면서 동하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원사》에도 “만노가 을해년부터 무리를 모아 동해를 지켰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동해”가 가리키는 것은 지금의 일본해이며 “동해에 거주”한다는 것과 “동해를 지켰다”는 것은 일본해와 인접한, 동북의 동부일대를 널리 가리키는 것이다. 즉 지금의 러시아 빈해변강지역과 조선 함경남북도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지역도 동하국의 동부관할지역이었었다. 이로부터 금나라 때 여진인들은 료나라 때의 “동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원나라는 건립된 이후 동북지역에 료양행성을 설치하였다. 동북지역의 여진인들은 각각 료양행성산하의 개원로총관부 여진수달달 등 로총관부 및 그 산하에 있는 만호부, 천호부에 귀속되었다. 《원일통지》 기록에 따르면 개원로는 “남으로 장백의 산을 안정시키고 북으로 경천지해에 들어가며 세 나라의 수도였고 다섯 나라의 고성이었으며 또한 동북의 한 도회이다.”

원나라 사람 송무(宋无)가 《일본스님에게 드림(贈日本僧)》이라는 시에는 또 “비석경해정, 배도신루공(飞锡鲸海静, 杯渡蜃楼空)”이라는 시구가 있다. 여기에서 “경천지해”, “경해”는 모두 지금의 일본해를 가리킨다. 이 외에도 경해서안에 설치된 천호소 중에 경해천호소가 있는데 그 위치는 러시아 빈해변강지역의 동부해안이다. 이로부터 원조시기에는 지금의 일본해를 “경해”라고 불렀음을 증명할 수 있다. “원대여진분포도”와 《중국역사지도집》 제7권 “원시기전도”의 동북아부분과 “원료양행성”국부도를 보라.

명나라는 건립된 후에 원나라에서 사용하던 “경해”를 계속해서 사용하였다. 《명실록》에 “옛 원나라 경해천호 속가첩목아, 목답하천호 완자첩술아, 아란천호 조화가 여진으로부터 귀순하여 돌아왔다.”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원나라 시기에 경해천호소, 목답하천호소, 아란천호소는 모두 경해서부해안에 있었다. 이는 “경해” 서부해안지역에 많은 여진부락들이 분포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자세한 것은 “명말여진분포도”를 보라. 명나라는 동북지역에 료동도사와 노아간도사를 설치하였다. 노아간도사의 범위에 대해서 《환우통지》의 기록을 따른다면 “그 땅은 동으로 바다에 임했고 서로는 올량하(兀良哈)와 접했으며 남으로 조선과 이웃하고 있고 북으로는 노아간과 북해에 이른다.” 소위 “동으로 바다에 임했다”는 것은 지금의 일본해를 말하며 원나라 때 부르던 소위 “경해”이다. 《대명통일지》에서도 “경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지도출판사에서 출판한 《중국역사지도집》(원명시기) 제7권 중 “명시기전도(一)”, “명시기전도(二)” 및 “노아간도사”의 지도 중에서 모두 지금의 일본해 해역에 “경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부터 추리하면 명나라 때에는 지금의 일본해 해역이 “경해”라

고 불리운 것이 확실하다. 자세한 것은 《중국역사지도집》 제7권"명시기전도"의 동북아부분과 "명노아간도사"국부도를 보라.

명조말기 여진각부는 몇 개의 강대한 부락을 형성하였는데 호룬부, 건주부, 장백산부, 동해부 등이다. 그 중 동해부에는 옥집, 와얼카, 후얼하, 사렌하, 스쥬, 스루와 쉬룬 등 7부가 있었다. "동해"명칭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건주여진이 궤기한 이후 누르하치는 여진의 각 부족을 통일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동해"의 명칭은 역사에서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다. 위원(魏源)의 《개국용흥기》에는 명만력(明万历) 39년(1611년)에 누르하치가 "어이두(額亦都)에게 명하여 군사 2천으로 동해의 후얼하부족의 짜쿠따(札庫塔)인을 공격하여 3일 만에 그 성을 공략하였고" 후금천명 원년(后金天命元年)(1616년)에는 " 동해 사하렌루를 정벌하여 배를 타고 우룩간강(烏勒簡河)을 건너 마을 수십 개를 취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 살펴보면 후금천명 2년(1617년)에 누르하치는 "동해 연안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부족들이 귀순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사 400을 보내어 " 그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일일이 인수하게 하였고" 천명 10년(1625년) 정월에는 버얼진이 군사 2천을 거느리고 "동해근처에 사는 와얼카(부족)을 정벌하고" 8월에 버얼진은 "동해연안에 거주하는 나라를 정벌하여 5백호를 데리고 돌아왔다." 는 기록도 있다. 여기에 나오는 "동해"는 모두 지금의 일본해를 지칭한다. 청나라가 건립된 이후에는 동해여진을 내륙 쪽으로 이주시켜 8기에 편입시켰다. 동해 염초하(지금의 암저하)의 까산따바크 부족을 양황기(鑲黃旗)에 편입시키고 동해 타인사하(台音薩哈)의 까산따망주소부를 정백기(正白旗)에 편입시키고, 동해 허치다의 쿠르카를 양홍기(鑲紅旗)에 편입시키고 동해 아지거다의 쿠르카를 양백기(鑲白旗)에 편입시키고 동해 투라무의 쿠르카를 정홍기(正紅旗)에 편입시키고 동해 쿠르카까산따따바쿠를 정황기(正黃旗)에 편입시키고 동해 세린하의 아닝키씨쿠르카를 정홍기(正紅旗)에 편입시키고 동해 쿠르카의 뿌차씨를 정남기(正藍旗)에 편입시켰다.

청군이 산해관으로 들어온 후 동북에 료동(성경) , 녕고탑(길림) , 흑룡강 장군을 설치하여 동북을 관리하였다. 그 중 녕고탑 장군의 관할범위는 "동쪽으로 동해까지 동남으로 시까타 산해계(希喀塔山海界)까지(지금의 석화특산) 동북쪽으로 페이야카해계까지 서쪽으로는 위윈보에 이른다" 길림 장군의 관할범위는 "동남으로 시까다산계까지 동쪽으로 동해계까지 켈", 길림 장군 관할 하에 있는 녕고탑 부도동의 관할범위는 "동쪽으로 동해까지 3천여리 켈" 이다. 《삼성지(三姓志)》에 또한 삼성성(지금의 흑룡강성 이란)이 "서쪽으로 후얼하와 닿아있고 동쪽으로 왜궁하(倭肯河)와 접해있으며 송화강을 따라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면 길림에 닿을 수 있고 물길따라 내려가면 곧장 동해로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청나라 시기에는 사람들이 지금의 일본해해역을 "동해"라고 불렀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청조가 지금의 일본해해역을 광범위하게 "동해"라고 부른 외에 또 진일보 세분화하여 지금 일본해 북부해역을 "동해"라 하고 남부를 "남해"

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길림외기》, 《성경통지》, 《해국도지》에 모두 나와 있다. 《중국역사지도집》 제8권에는 아주 분명하게 "동해" "남해"로 표기되어 있다. 상세한 것은 “청시기전도”의 동북아부분 및 “길림장군관할국부도”를 보라.

결론적으로 19세기 80년대 이전까지 중국역사문헌들에서는 지금의 일본해를 "동해", "경해"로 기록하고 있다. "일본해"라는 명칭은 서방식민주의자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며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마음내키는 대로 지은 것이다.

三. 일본해 해역을 다시 명명할데 대한 의견

一. 우리는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료, 송 왕조로부터 19세기말까지 천 여 년동안 중국과 주변나라들에서는 "동해", "경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일본해해역을 지칭하였으며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불과 백 여 년의 일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는 각도에서 볼 때 마땅히 재 명명해야 한다.

二. 국제 준칙의 각도에서 볼 때 모든 공해는 특정된 나라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해이름에 나라 이름으로 명명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일본해해역주변 나라들의 감정을 존중하여 다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三. "경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을 건의한다. 비록 "동해"라는 이름이 역사는 유구하지만 지금의 중국동부해안에 이미 "동해"라는 이름이 있으므로 "동해"라고 하면 중복이 된다. "경해"라는 명칭도 역사에서 많이 사용하던 이름이고 게다가 특징도 있으므로 "경해"를 사용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데도 더욱 유리할 것이다.